

동부아시아 민족복식 색동계보

조우현⁺ · 김미진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의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Genealogy of the Rainbow Stripe in Ethnic Costumes in East Asia

Woo-Hyun Cho⁺ · Mi-Jin Kim

Professor, School of Art,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투고일: 2010. 1. 20, 심사(수정)일: 2010. 3. 12, 게재확정일: 2010. 3. 25)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 to trace a genealogy of Rainbow stripe in 30 ethnic costumes in East Asia. And with through comparative views between Korean and the other minority that is shown a bilateral relation of rainbow stripe in their costume, we make sure the unique character of rainbow stripe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The stripe in the costumes was generally used on sleeves with 3~6 patches. There were 10 types of methods for making the stripe including sewing. Weaving and sewing with trimming was also frequently used either and the stripe by weaving with multicolored yarns were mostly found in the southern region of china. Black, blue and red were frequently used in the costume as a main color that was contrasted with rainbow stripe and especially, black was mostly used. Korean preferred bright colors as a main color. Contents of the genealogy of the multicolored stripe in ethnic costume in East Asia are followed. The 28 ethnic groups who used the stripe in their dress except Korean, the Mans, Mongo people and Tibetan were located in the southern region of East Asia. And the other ethnic groups distributed in the northwest and northeast region of East Asia. The distribution of the rainbow stripe in the costume could be grouped into two sections: the southern region people and Korean-the Mongol people-the Tus- the Zangs group. And the latter group was shown strong relation with the culture of Korean's rainbow stripe costume. 11 ethnic peoples including Korean, the Yis, the Miaos, the Tus, the Mongol people, the Chaoxians, the Zangs, the Lahus, the Jinuos, the Hanis, the Luobas and the Dulong, were saliently used the stripe in their costume. The stripe in Japanese costume was judged that was not a kind of the rainbow stripe was shown the other ethnic groups, was a color arrangement by layered dress or geometrical pattern. From above, we could recap a particular characteristic of the rainbow stripe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Many colors were used in the stripe and bodies than the other ethnic people and the color was bright. In many cases, a color of patch at the point of armhole was red and Black color was not used in the stripe. The width of patch was a relatively narrow and regular. It has shown that the rainbow stripe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was organized independently.

Key words: Rainbow stripe(색동), East Asia(동부아시아), Genealogy(계보), Ethnic people(민족)
Traditional Custume(전통복식)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08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Woo-Hyun Cho, e-mail: joy54@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색동은 색색가지 천 조각을 이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주로 어린이 옷의 소매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동강의 천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색 배열이 우리민족의 색채감각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2006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¹⁾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색동은 우리 민족복식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양식은 아니다. 몽골족이나 라후족의 복식에서도 유사한 색의 조합이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 어떤 이유에서 색동이 우리 색채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2. 인접한 민족들의 색동은 어떠한 형태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3. 우리 민족복식에 나타난 색동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민족은 누구인가?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부아시아 지역의 민족복식에 나타난 색동을 조사하고, 둘째, 연관성과 차이점을 밝혀 색동의 계보를 밝히며, 셋째, 우리민족과 상호유사성을 보이는 민족복식색동과의 관계 및 그 속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우리 민족 색동의 독자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다양한 민족복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적용

되는 개념의 범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제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의의 두었다.

연구지역의 범위를 동부아시아²⁾지역으로 하고 총 58개의 민족 중 복식에 색동이 사용된 30개 민족으로 한정하였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민족복식에 보이는 색동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색동의 개념을 사전적 정의에 한정하지 않고, 연속되어 색을 표현된 모든 형태를 색동의 개념적 범주 안에 두었다. 연구 자료는 지역범위 내에 위치한 30개 민족³⁾과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자료, 신문기사, 도록 및 사진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및 도록의 분석 등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중국현지조사⁴⁾를 통한 실천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II. 색동의 정의와 유래

색동(色-)은 여러 색의 옷감을 잇대거나 여러 색으로 염색하여 만든 아이들의 저고리나 두루마기 소매감을 말한다.⁵⁾ 색동의 동은 순수한 우리말로써, 저고리 소매에 이어 대는 천 조각을 말한다.⁶⁾ 한국복식문화사전⁷⁾에는 [오색으로 염색하거나 오색 비단 조각을 잇대어서 만든 어린이 저고리의 소매 길 또는 잇대어서 쓰이는 좁은 헝겊오리]로, 한국어대사전⁸⁾에는 [색동은 원색 비단 조각을 잇대서 만든 어린이가 주로 입는 저고리의 소매길, 색동 옷감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옷감으로 무지개처럼

<표 1> 동부아시아지역내에 위치한 58개 민족(색이 칠해진 민족은 복식에 색동이 사용된 것임)

한국민족	일본민족	한족 (漢族)	장족 (壯族)	만주족 (滿族)	후이족 (回族)	마오족 (苗族)	위구르족 (維吾爾族)	투자족 (土家族)	이족 (彝族)
몽골족 (蒙古族)	티베트족 (藏族)	부이족 (布依族)	동족(侗族)	야오족 (瑤族)	조선족 (朝鮮族)	바이족 (白族)	하니족 (哈尼族)	카자흐족 (哈薩克族)	리족(黎族)
다이족 (傣族)	쉐족(畲族)	리수족 (傣族)	거라오족 (仡佬族)	둥샹족 (東鄉族)	고산족 (高山族)	라후족 (拉祜族)	수이족 (水族)	와족(佤族)	나시족 (納西族)
치양족 (羌族)	투족(土族)	두라오족 (仫佬族)	시버족 (錫伯族)	키르기스족 (柯爾克孜族)	다위르족 (達斡爾族)	징포족 (景頗族)	마오난족 (毛南族)	사라족 (撒拉族)	부랑족 (布朗族)
타지크족 (塔吉克族)	아샹족 (阿昌族)	푸미족 (普米族)	예벤키족 (鄂溫克族)	누족(怒族)	징족(京族)	지녜족 (基諾族)	타잉족 (德昂族)	바오안족 (保安族)	러시아족 (俄羅斯族)
유즈르족 (裕固族)	우즈베크족 (烏茲別克族)	민바족 (門巴族)	어룬춘족 (鄂倫春族)	둥뽕족 (獨龍族)	타타르족 (塔塔爾族)	나나이족 (赫哲族)	뤄바족 (珞巴族)		

* 본 연구에서 지정하는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명칭은 중국정부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랐다. 자료출처: <http://www.gov.cn/>

여러 가지 빛깔로 층이 지게 한 옷감], 어원사전⁹⁾에는 [색동이란 빛깔이 있는 천조각이라는 뜻으로서 아이들의 옷소매에 동을 무지개처럼 여러 빛으로 줄지게 만드는데 쓴 비단 천조각을 이르는 말이다. <동>이란 <동정>의 동과 같은 것인데 천조각을 말한다.]로 정의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소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동'의 언어기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진동은 한글로만 이루어진 우리말로, 어깨선에서 겨드랑이까지의 폭이나 넓이¹⁰⁾를 말한다. '동'은 색동의 동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진'은 '길다'의 총칭도 방언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진동은 소매에 붙는 긴 천조각 부위를 지칭하는 형태에서 발전된 단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색동 외에도 색동단이나 색동천, 색동저고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색동단은 색동을 모아 댄 것과 같이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빛깔로 줄지게 짠 천을 말하며 색동천이라고 하였다.¹¹⁾ 색동저고리는 한국복식사사전¹²⁾에서 [음양오방색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오방색은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중앙은 황색을 이를 기준으로 하여 흑색을 뺀 적·청·백·황·녹의 5색이 쓰였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승연의 연구¹³⁾에선, 고부자, 석주선, 이훈종과의 인터뷰와 유희경의 연구를 종합하여 색동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원과 유래에 대해 추정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색동은 색에 동 달았다고 동이란 한 칸을 말하며 한 가지 색이든 오방색이든 모든 색동이 될 수 있으며, 아름답게 꾸며주는 의미로서 남은 천을 잇는 것이 조각보의 개념과 동일 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색동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상고시대 고구려벽화에서 색동치마를 입은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삼국유사에 기록된 직물의 명칭에서 유추하여 실제로 존재했으리라 추정된다. 상고시대 동양 삼국의 벽화에서는 고구려벽화와 같이 색동치마를 착용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금기숙¹⁴⁾은 상고시대 동양 삼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색동형식의 색채대비가 유독 우리나라 고유의 색채조화로 정착된 것에 주목하고, 이것은 한국인의 색채관을 형성하는 미적 태도에서 인한 것으로 보

았다.

기능적인 복식변천의 관점에서 색동은 소매를 달 때 중간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발생했다는 가설이¹⁵⁾ 있는데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직기 폭이 40cm를 넘지 않아 길이가 긴 소매를 달 때 빈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시대 스님의 아이에게 색동을 입혀 알아 볼 수 있게 하라고 했다는 설¹⁶⁾이 있다. 색동이 우리복식의 고유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근거를 외부에서 찾는다면, 몽골이 우리나라를 무지개 나라[솔롱고스, Солонгос улс]라고 부르는 기원을 들 수 있다. '솔롱고(сологонго)'는 몽골어로 '무지개'를 지칭하는 보통명사인데, 한국을 솔롱고스(무지개나라)라고 부른 연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지개를 찾아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 혹은 해와 무지개가 뜨는 동쪽 나라라서 해서 지칭한다는 설과 둘째, 원 순제가 기황후를 들인 후, 그녀의 고향인 고려를 가리켜 '무지개 나라'라고 불렀다는 설,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비슷한 맥락에서 원나라에 끌려온 공녀들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무지개 색을 닮아서 고려를 '무지개나라'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¹⁷⁾ 또한, 색동이 티베트에서 몽골로 전해진 '무탁(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하는 무지개 같은 오색실)'의 변형으로 보는 관점¹⁸⁾도 있는데 실제로 티베트, 몽골 그리고 한국의 색동에 유의미한 유사점이 보여 몽골계 민족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줄무늬 형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⁹⁾

Ⅲ. 동부아시아 민족복식에 나타난 색동의 특징

58개 민족복식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색동 혹은 여러 색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색동과 유사한 형태의 줄무늬를 보이는 민족은 30개 민족이었다.

그러나, 일본민족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색동은 그 수가 적고, 색동의 형태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이후 세부 분류 및 분석에선 일본민족을 제외한 29개 민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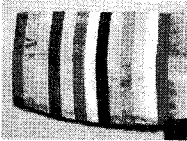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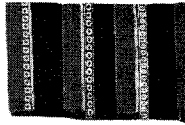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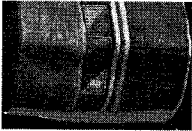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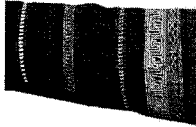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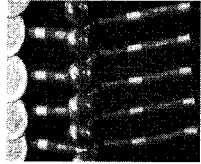
일본의 색동이 배제된 이유는, 색동의 특성이 다른 자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 전통 복식에서 색동 혹은 색동효과를 보인 형태는 서로 다른 색의 옷을 중첩하여 낸 효과이거나, 2-3개의 색이 옷 전체에 바둑판처럼 조합하여 구성된 경우, 2개의 줄무늬가 연속하여 옷 전체의 문양을 구성한 경우였다. 일본 전통 옷에 대한 선행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구성에 대하여 중첩효과²⁰⁾에 의한 색채대비 혹은 직물의 기하학적 문양의 한 형태²¹⁾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색동을 복식구성에 있어서 독립적인 양식이라는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의도와 다른 형태라 생각된다. 색동의 유무에 따라 분류된 이미지 자료는 색동의 사용부위, 구성기법, 사용된 색수, 복식의 주된 색(갈: Bodies)과의 관계 등 4가지 관점에서 세부 분류하였다.

1. 사용부위에 따른 특징

분류된 29개 민족복식에서 보이는 색동은 소매, 변, 선, 허리띠, 앞치마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상

의 전체, 치마, 각반, 목걸이, 조끼, 바지, 쓰개, 장식, 직물 등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소매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²²⁾, 이는 여러 가지 색을 이은 천을 주로 소매에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임을 증명한다. 소매에 사용된 색동의 형태도 소매의 일부분에 사용된 형태와 전체에 활용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민족과 같이 소매 전체에 활용된 민족은 마오족, 투족, 몽골족, 장족(티베트족), 조선족, 라후족 등 6개 민족이었다. 소매 외에 변, 선, 치마, 각반, 앞치마, 허리띠에 다수 사용되었다. 소매와 선, 혹은 변과 같이 2군데 이상 동시에 색동을 사용한 민족의 수도 적지 않은데 이족, 장족(티베트족), 야오족, 하니족, 다이족, 리수족, 거라오족, 고산족, 라후족, 와족, 투족, 아창족, 지취족, 한국민족 등 이다. 다양한 부위에 색동을 사용한 민족은 이족, 다이족, 리수족, 라후족 등 이다. 이족은 소매, 변, 선, 상의, 치마, 앞치마, 쓰개 등에 활용되었고 다이족은 소매, 변, 상의, 치마, 앞치마, 허리띠 등에 사용되었다. 리수족은 소매, 변, 치마, 각반에 라후족은 소매, 변, 선, 각반에 사용되었다.

〈표 2〉 색동구성기법에 따른 분류

천잇기	선	수	직조	천잇기+선
				
천잇기+수	천잇기+선+수	천잇기+직조	선+수	실로감기
				

천잇기: 오색창연, 2009, p.108/ 선: 중국묘족복식, 1985, p.38/ 수: 경산이족복식문화여공예, 2008, p.13/ 직조: Tibet Style, 2006, p.59/ 천잇기+선: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천잇기+수: 중국운남민족문화전, p.98/천잇기+선+수: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천잇기+직조: 中國少數民族 = China's minority peoples, 1994/선+수: 경산이족복식문화여공예, 2008, p.19./실로감기: 중국운남민족문화전, p. 135.

2. 기법에 따른 분류

색동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기법은 ① 천잇기, ② 직조, ③ 수, ④ 선두르기를 기본적으로 활용되었으며, ⑤ 천잇기+선, ⑥ 천잇기+수, ⑦ 천잇기+직조, ⑧ 천잇기+선+수, ⑨ 선+수 등과 같이 여러 방법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색실을 일정너비 만큼씩 연속적으로 감아 색동효과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었다<표 2 참조>²³⁾. 이 중 천잇기로 색동을 구성하는 방법 21개 민족복식²⁴⁾에서 확인되어 색동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직조, 천잇기+선두르기가 혼재된 방법이 각각 10개 민족에게서 확인되었다. 특히 직조를 통해 색동을 구성하는 민족은 이족, 장족(티베트족), 부이족, 바이족, 다이족, 수이족, 푸미족, 누족, 두롱족, 뤼바족, 한국민족 등 인데 대부분의 민족이 중국 서남지역과 운남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족, 마오족은 색동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민족보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족의 경우 천잇기, 수, 직조, 천잇기+선, 천잇기+수, 천잇기+선+수, 천잇기+직조, 선+수 등 7가지로 파악되었고, 마오족의 복식에선 수와 직조로만 구성한 색동을 제외한 5가지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민족복식에서 보이는 색동은 옷을 만들 때 빈 곳이나 모자라는 것을 천조각으로 이었다는 기능론적 발생에서부터 장식적인 목적을 충족하고 더 발전된 형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3. 사용된 색 수에 따른 특징

동부아시아 지역 민족복식에서 보이는 색동은 2가지 색에서부터 11가지의 색으로 이루어졌다. 3개에서 6개 사이의 색의 사용이 많았으며, 7색 이상: 다색으로 구성된 민족은 한국민족, 장족, 투족, 만주족, 이족, 바이족 등이었다. 이 중 한 민족의 색동은 검정색을 제외한 오방색의 원색과 간색이 활용되었는데 최대 11가지의 색이 사용되었을 정도로 색의 활용이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중국민족의 경우, 검정색에 대한 배제는 없었으며 오히려 적극 검정색

을 활용되었는데, 이는 소수민족의 검정색에 대한 선호와 다음에 언급될 주색과 밀접한 연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주색과 색동과의 관계

주색(主色)은 각 복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을 말하며, 대부분 색동과 직접 이어지거나 색채대비를 이루므로, 주색과 색동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민족의 고유한 색채문화와 색 감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연구 자료가 도록이나 사진과 같은 2차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색명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멘셀표색계의 색상환표기(R, RY, Y, YG, G, GB, B, BP, P, PR)를 차용하였고 검정색, 흰색과 같은 무채색은 원 색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주색으로 많이 사용된 색은 검정색, B, R계열의 색, 흰색 등이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보이는 색은 검정색이다. 검정색을 주색으로 사용한 민족은 몽골족과 투족을 제외한 서남, 운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B계열의 색 역시 마찬가지다. 이유는 남방인들의 주변 환경 및 기후, 그리고 이족의 흑색승배를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남방의 아열대성 온난한 기후대에서 언제나 황색의 토지, 녹색의 전답, 파란색의 물을 늘 접하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복식에 있어선 청남색이나 검정색 등의 수수한 색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²⁵⁾ 또한, 운남성과 사천성에 인접해 사는 이족은 검은색을 숭상하는데, 이족 중 지위가 가장 높은 흑이(黑黎)의 남자 복식도 항상 흑색으로 만든다고 한다.²⁶⁾ 옷감으로 주로 검은색, 청색, 남색 등을 사용하는데 이는 장엄하고 정중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²⁷⁾ 검정색을 주색으로 3-6가지 색의 색동이 소매를 비롯하여 선, 변, 앞치마 등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수한 색채에 대한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검정색은 '죽음'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옷에서 주된 색채로의 사용은 미미하였다.

주색을 다양하게 사용했던 민족은 한국민족, 마오족, 이족, 다이족, 투족 등이었다. 한국민족의 주색은, 흰색, R, Y, YG, G계열의 색으로 분석된 30개

〈표 3〉 두 그룹에 속한 민족복식 색동의 특징

색동분류	남방지역의 색동	한국민족·조선족·몽골족·투족·티베트족의 색동
사용부위	소매, 변, 선, 상의, 치마, 앞치마, 쓰개, 목걸이, 각반, 바지, 조끼, 허리띠	소매, 선, 상의-장식
구성기법	천잇기, 선, 수, 직조, 천잇기+선, 천잇기+수, 천잇기+선+수, 천잇기+직조, 선+수	천잇기, 천잇기+선, 천잇기+선+수, 직조, 실로감기

민족 중에서 가장 화사하고 밝은 색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색동이 주로 어린이의 옷이나 예복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밝고 화사한 색이 사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검정이나 B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된 다른 민족의 예와 비교해볼 때 특이할 만한 점이다. 또한, 주색이 사용된 길(Bodies)과 이어지는 색동의 색이 대부분 R계열(빨간색)인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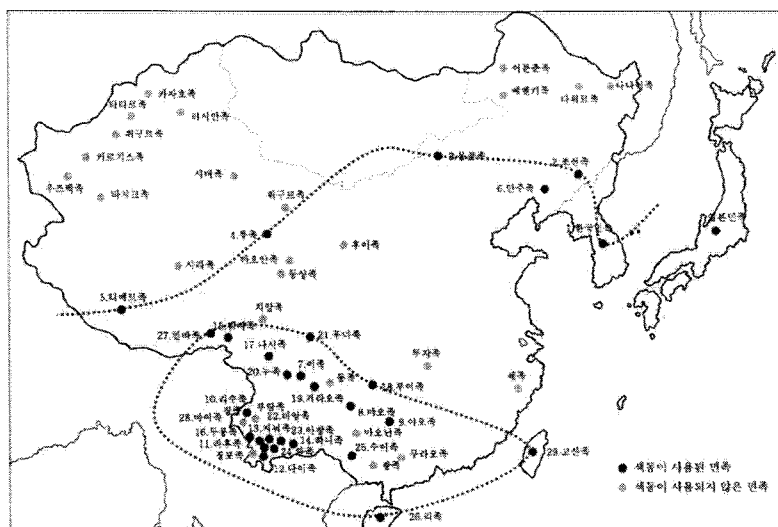
IV. 동부아시아 민족복식 색동의 계보

1. 동부아시아 민족복식 색동계보의 특징

이상에서 파악한 것을 정리하여 동부아시아 지역 민족복식에 나타난 색동의 특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그림 1)28), 〈표 4 참조〉29). 먼저, 색동의 유무에 따라 분류된 민족의 위치적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색동이 사용된 29개 민족 중 한국민족,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투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국의 서남, 운남, 동남지역에 집중되었고, 그렇지 않은 민족은 중국의 서북, 동북지역에 위치하였다(그림 1 참조)30).

이 지역은 한족, 카자흐계민족, 위구르계민족, 회족의 분포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민족복식의 특성 중 하나인 “북방원색, 남방흑색”과 연관하여 추정할 수 있다. 북방지역의 민족은 광활한 초원 및 사막, 고원 등 무미건조한 자연 속에서 주변과 대비되는 강렬한 색채를 복식에서도 선호하게 되었는데31), 이러한 선호는 화려한 색채대비를 이루는 색동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검정, 남색, 파란색과 같이 수수한 색을 선호하는 남방민족의 색동이 장식적으로 발달하였는데,



〈그림 1〉 색동의 유무에 따라 구별된 민족의 지역분포

<표 4> 동부아시아지역 민족 색동복식

1. 한국민족 	2. 조선족 	3. 몽골족 	4. 투족 		
5. 장족(티베트족) 	6. 만주족 	7. 이족 	8. 마오족 		
9. 야오족 	10. 리수족 	11. 라후족 	12. 다이족 	13. 지눠족 	
14. 하니족 	15. 뤼바족 	16. 두롱족 	17. 나시족 	18. 부이족 	18. 부이족 
19. 거라오족 	20. 누족 	21. 푸미족 	22. 더양족 	23. 아창족 	24. 와족 
25. 수이족 	26. 리족 	27. 먼바족 	28. 바이족 	29. 고산족 	

* 표 4에서 사용된 사진의 출처: 1. 한국민족, 오색장연, 2009, p.108/ 2. 조선족,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上, 2004, p.32/ 몽골족,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上, 2004, p. 86/ 4. 투족,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上, 2004, p.287/5. 장족(티베트족),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上, 2004, p.402/6. 만주족,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上, 2004, p. /, 7. 이족, 경산이족복식문화여공예, 2008, p. 4.,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上, 2004, p.536./8. 마오족, 중국요족복식, 1985, p.38/9. 야오족,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下, 2004, p.455/ 10.리수족,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下, 2004, p.353./11. 라후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12. 다이족,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下, 2004, p. 351./13. 지뉘족, 중국운남민족문화전, 2005, p. 81.,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下, 2004, p. 268./14. 하니족, 중국운남민족문화전, 2005, p.98,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下, 2004, p.323/ 15. 뤼바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16. 두롱족, 中國少數民族 = China's minority peoples, 1994/ 17. 나시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18. 부이족,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下, 2004/ 19. 거라오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 149/ 20. 누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 109/ 21. 푸미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106. , 22.더양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 114/ 23. 아창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 105/ 24. 와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 88/ 25. 수이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144/ 26. 리족, 中國少數民族 = China's minority peoples, 1994/, 27. 만바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54./ 28. 바이족, 中國織繡復飾全集-少數民族復飾卷 下, 2004, p.290./ 29. 고산족,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179

이족이나 마오족의 복식의 정교하고 화려한 색동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동부아시아 민족복식 색동분포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남방지역 민족 복식의 색동과 상·중단에서 흐름을 보이는 한국민족 - 조선족 - 몽골족 - 투족 - 티베트 족의 색동이다(그림 1 참조). 남방지역 민족의 색동은 사용부위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구성방법이 적용되었으니 한국민족 - 조선족 - 몽골족 - 투족 - 티베트 족의 색동은 소매, 선, 상의의 일부에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구성방법도 남방지역의 예보단 적용된 수가 적었다(표 3 참조).

셋째, 분석된 29개 민족 중 색동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민족은 한국민족, 이족, 마오족, 투족, 몽골족, 조선족, 장족(티베트족), 라후족, 지뉘족, 하니족, 뤼바족, 두롱족 등 11개 민족이다. 이 중 이족, 마오족, 라후족, 지뉘족, 하니족, 뤼바족은 운남, 서남에 위치한 민족으로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적인 기능이 발달하였다. 두롱족은 직조하여 색동천을 만들어 사용하는 대표적 민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민족의 색동과 관련하여 투족의 민족복식이 사용부위, 구성기법, 다채롭게 사용된 색의 수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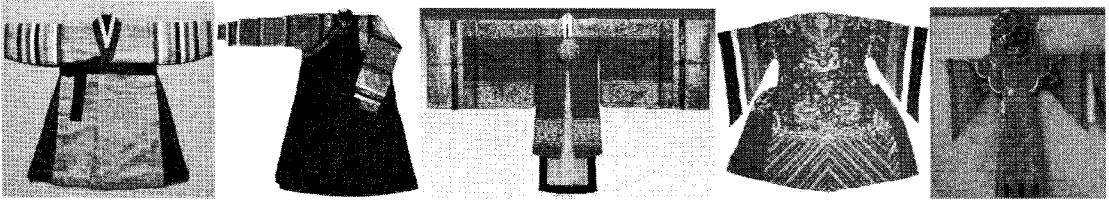
넷째, 일본 전통복식에서 보이는 색동은 중첩에 의한 색의 배색이거나 기하학적인 직물문양으로 파악하였다. 복식 구성 유형이 아닌, 창작법에 의해 연출된 배색 효과나 단계식 배치구성에 의해 줄무

늬처럼 인식되는 텍스타일 문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상 동부 아시아 지역의 복식문화교류가 일본과 단절되어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으로 일본 헤이안 시대(8~12C, 平安時代) 형성된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와 그 배경을 들 수 있다. 이전 시대에 강했던 중국 당식(唐式)문화를 국문화하여 일본의 독자적 문화를 형성시켰는데, 대륙과의 국교가 적어져 후기에 이르러서는 일본 독자적인 '화양화(和樣化)'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직물디자인과 복식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형식이나 색채미를 강조한 의례복이 발달하여 의복을 겹쳐 입는 것이 계급과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옷을 겹쳐 입는 방식은 여방장속 방식의 특색으로 일본복식 구성에 있어 오래 계승되어 왔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³²⁾

다섯째, 색동구성의 다양함이다. 총 10개의 구성법이 파악되었는데, 색동의 사전적 정의와 같이 색이 다른 천 조각을 잇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선, 수, 직조 등을 자유롭게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직조하여 색동천을 만드는 민족이 서남, 운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 민족복식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2. 한국복식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민족의 색동

앞에서 언급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민족-조



〈그림 2〉 한국민족·투족·몽골족·장족(티베트족)의 민족복식에 사용된 색동
 오색창연, 2009, p. 109/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 36/ www.gogung.go.kr/Mongol Costume, p. 68/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p. 51.

선족-투족-몽골족-장족(티베트족)의 색동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민족과 투족의 색동은 다른 민족보다 외형이 많이 흡사하고, 소매전체에 다양한 색을 활용하여 천을 잇는 방법으로 색동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연관 높게 보인다. 또한, 몽골족과 장족(티베트족)의 종교무복(Charm dance gown)에서 사용된 색동이 우리의 전통예복에서 보이는 색동과 유사하다는 것은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바이다.

다른 민족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접근하기 어렵고 힘든 과제다. 따라서 각 민족의 민족계열, 기원, 언어, 종교, 의복 등 인류문화학적 접근을 통해 추정하도록 하겠다. 한국민족-조선족-몽골족-투족-장족(티베트족)은 조선족 - 몽골족계 - 장이족계 등 3개 민족계열로 모아진다. 조선족은 한국에서부터 중국으로 유입된 민족이며, 투족은 몽골족계의 민족으로 스스로 몽고어(蒙古語), 찰한몽고어(察罕蒙古語) 등으로 부르는데 이들이 몽골족을 찰한몽고어(察罕蒙古語)로 부르고 있으며 원대(元)부터 청대까지 몽고어와 찰한몽고어로 불렸다³³⁾. 티베트인은 장족(藏族)으로 호칭되며, 민족계열은 장이족계로 분류³⁴⁾되었다. 티베트의 라마 불교는 몽골족과 토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라마경전의 전파로 인해 티베트어가 두 민족의 언어에 또한 영향을 미쳤다.³⁵⁾ 몽골어와 투족의 언어는 알타이어계 몽골어족에 속하는데 티베트어의 문자와 어휘를 많이 차용한다. 우리의 언어역시 알타이어계로 알려져 있으며, 몽골족, 투족과 같은 언어계통에 속하고 있다. 중국내 거주하는 조선족의 본격적인 역사는 1869년 기사년(己巳年) 자연재난 이후 당시 조선 왕조의

적지 않은 백성이 기근을 피해 대거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고대부터 한국민족이 중국에 정착하였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서기 7세기 후반 백제와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면서 군사들에 의해 고구려 유민들은 당나라 내부로 강제 이주 했다. 당시 당나라 조정은 오늘날의 회수(淮水)유역과 사천성, 청해성 및 감숙성 일대의 황무지 등에 수만 호(戶)의 고구려 유민을 이주시켰는데 이 가운데 사천성, 청해성, 감숙성 일대의 고구려 유민들은 다른 지역의 유민들과는 달리 동화가 늦어지면서 현지의 군사로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현지에 동화되어 단절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남쪽으로 이주하여 오늘날 소수민족인 라후족을 형성했다는 견해도 있다³⁶⁾ 〈그림 2 참조〉³⁷⁾. 투족은 그 기원에 대해 여러 설이 있는데 그중 토곡혼 후예설이 가장 지지 받는 듯하다. 토곡혼(吐谷渾)은 원래 요동 지역에 있던 선비족(鮮卑族) 모용씨(慕容氏)의 한 갈래인데, A.D. 4C 수령 토곡혼의 인솔하에 오늘날 감숙성 남부 및 청해성 동남부지역으로 이주하여 청해성에서 토곡혼을 건국하였으나 서기 663년에 토번(吐蕃)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후 토곡혼들은 일부 동쪽으로 이동하였지만, 대다수는 그대로 남았다. 이후 토번에 의해 동화 및 흡수되기도 하였으나, 남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감숙성 일부에 해당하는 하황지역에 정주하다가 원명(元明)시기에 몽고인 일부를 흡수하여 하나의 민족공동체 투족을 형성하였다.³⁸⁾

바로 여기에서, 우리민족과 투족, 장족(티베트족), 몽골족 문화의 충돌과 융합의 상관관계가 발생했으리라 추정되며, 투족복식의 색동이 우리민족복식의

영향을 받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인다. 이유는 첫 번째, 시간과 장소가 같다. 투족이 정착한 감숙성과 청해성은 고구려 멸망이후, 유민들이 이주한 사천성, 감숙성, 청해성과 일치한다. 또한, 토곡혼이 토번(장족의 기원)에 의해 멸망한 663년과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임으로 두 민족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 존재하였다. 두 번째, 고구려인의 이동경위와 정착과정(기록³⁹)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사천성, 청해성, 감숙성으로 이주한 고구려인들과 지역주민들과의 동화가 쉽지 않았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동안 고구려인의 문화를 지켜나갔을 것으로 추측되며 결국 현지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상호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색동의 기원과 관련하여 몽골인들이 한국을 '솔롱고스(무지개나라)'라고 부르게 된 설과 몽골에 전해진 티베트의 '무천'이 변형되어 한국으로 전파되었다는 설 등은 조선족, 몽골족, 장족(티베트족) 간에 문화교류로 오늘날 동부아시아내 색동양식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한국민족복식 색동의 특성

동부아시아 29개 민족복식에 나타난 색동의 분류 및 비교 분석을 파악된 한국민족복식 색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색동에 사용된 색이 많은 편이었다. 조사된 민족복식 색동의 평균 색은 3~6개가 사용되었고, 우리의 경우 7개 이상 최대 11개의 색으로 구성된 예를 볼 수 있었다. 실제, 원삼이나 활옷같은 예복은 황(黃), 청(靑), 적(赤), 백(白) 4색을 넘지 않았고 까치두루마기는 오방색을 중심으로 간색을 더하여 5~7개의 색을 사용⁴⁰하였는데, 점차 색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며, 우리민족의 색 감각이 매우 섬세하게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주색으로 사용된 색이 밝고 그 수가 많았다. 29개 민족의 대부분은 중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된 색이 검정, 남색, 파랑과 같은 어두웠고, 이외에 빨강, 흰색, 진분홍, 자주, 녹색 등이 사용된다. 우리민족의 경우에는 노랑, 녹색, 연두, 빨강, 흰색을 사용하였는데 조선족과 함께 주색에 노란 색을 사용한 유일한 민족이었다. 이러한 색의 선

호는 우리민족의 백색을 중심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담백한 색채의 선호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어린아이에게 생기와 번성을 상징하는 녹색계열의 옷을 입힌 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⁴¹⁾

세 번째, 색동과 길이 연결되는 부위의 색이 많은 경우 빨간색이 사용되었다. 특히, 길의 색이 연두색, 녹색, 노란 색일 경우 빨간색의 색동과 강렬한 색채의 대비가 극대화되었다. 이 부위의 색채 대비는 자연히 사람의 시선이 자극을 주고 고정을 유도하는데, Marian Davis⁴²⁾는 색동의 리듬감 있는 줄무늬가 어깨의 강조를 돕는다는 견해⁴³⁾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래 색동이 오방색을 활용하여 오복을 두루 갖춰 악한 기운을 막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했고, 색동의 가장자리 쪽에 아이의 생기를 상징하는 색을 두고 점차 그 색을 상생하는 순으로 배열했다는 원칙⁴⁴⁾에서 길과 연결된 빨간색의 색동은 벽사의 의미로, 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검정색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전통복식의 색채 및 복색에서 검정색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음양오행원리와 오방색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검정색은 陰이면서 '죽음'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는데, 이족의 '흑색승배'나 남방지역에 광범위하게 선호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다섯 번째, 색동의 폭이 비교적 좁고 균일하였다. 원삼이나 활옷을 제외하고, 어린아이 복식의 색동은 2cm내외로 규칙적이었다.⁴⁵⁾ 좁고 균일한 폭에 다양한 색의 색동은 동일한 색이 반복되거나 좌우 소매의 색 배열이 대칭하면서 경쾌한 리듬감이 생긴다. 색동의 너비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율동감을 주는 남방민족색동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동부아시아 지역 내에 복식에 색동의 사용이 명확한 30개 민족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색동문화의 계보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나아가, 한국색동문화와 상호관련성이 있는 민족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관계를 밝히고 다른 민족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밝혔다.

30개 민족복식에 사용된 색동의 전반적인 특징을 사용부위, 구성기법, 색 수, 주색과의 관계 등 4가지 관점에서 분류 분석하였다. 색동이 가장 많이 사용된 부위는 소매이며 이외에 변, 선, 치마, 각반, 앞치마, 상의 바지, 쓰개, 꾸밈장식 등에 사용되었다. 색동을 다양한 부위에 사용한 민족은 이족, 다이족, 리수족, 라후족 등이다. 색동을 구성하는 방법은 10가지 방법으로 구별되었는데 천을 잇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나, 직조 및 천잇기+선두르기가 혼재된 방법도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직조하여 색동을 구성하는 민족은 중국 서남, 운남지역에 대부분 분포하여 이 지역의 독특한 복식문화로 추정된다.

3~6개의 색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7개 이상의 여러 색을 사용하여 색동을 구성한 민족은 한국민족, 장족(티베트족), 투족, 만주족, 이족, 바이족 등이었다. 이 중 한 민족 최대 11가지의 색이 사용되었을 정도로 색의 활용이 적극적이었다. 색동과 색채대비를 이루는 복식의 주색에는 검정색, B, R계열의 색, 흰색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보이는 색은 검정색이었다. 이유는 중국복식을 구별하는 유형 중 “북방원색, 남방흑색”의 예처럼, 이유는 남방인들의 주변 환경 및 기후, 그리고 이족의 흑색승배를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색을 다양하게 사용했던 민족은 한국민족, 먀오족, 이족, 다이족, 투족이었다. 한국민족은, 연구의 범위내의 민족 중에서 가장 화사하고 밝은 색을 주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동부아시아 지역 민족복식에 나타난 색동의 분포와 계보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먼저, 색동사용의 유, 무에 따라 분류된 민족분포특징은 다음과 같다. 색동이 사용된 29개 민족 중 한국민족,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투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국의 서남, 운남, 동남지역에 집중되었고, 그렇지 않은 민족은 중국의 서북, 동북지역에 위치하였다. 둘째, 동부아시아 민족복식 색동분포는 남방지역 민족 복식의 색동과

상·중단에서 흐름을 보이는 한국민족 - 조선족 - 몽골족 - 투족 - 티베트 족의 색동으로 분류된다. 셋째, 민족복식에서 색동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민족은 한국민족, 이족, 먀오족, 투족, 몽골족, 조선족, 장족(티베트족), 라후족, 지뉘족, 하니족, 튀바족, 두룽족 등 11개 민족이다. 이 중 이족, 먀오족, 라후족, 지뉘족, 하니족, 튀바족은 운남, 서남에 위치한 민족으로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적인 기능이 발달하였다. 두룽족은 직조하여 색동천을 만들어 사용하는 대표적인 민족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일본 전통복식에서 보이는 색동은 중첩에 의한 색의 배색이거나 기하학적인 직물문양으로 파악하였다. 그 이유는 헤이안 시대(8~12C, 平安時代), 이전 시대에 강했던 중국 당식(唐式)문화를 국풍화하여 일본의 독자적 문화를 형성한 것에서 기인하여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중첩이 일본 고유의 복식문화로 자리 잡음에 있다. 다섯째, 색동구성 방법의 다양함이다. 총 10개의 구성법이 파악되었는데, 색동의 사전적 정의와 같이 색이 다른 천 조각을 잇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선, 수, 직조 등을 자유롭게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많은 민족을 연구할 때, 색동의 구성방법이 천잇기에 제한된 우리의 개념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의 색동문화와 뚜렷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민족은 조선족-투족-몽골족-장족(티베트족)이다. 특히, 우리민족과 투족의 색동은 다른 민족보다 외형이 많이 흡사하고, 소매전체에 다양한 색을 활용하여 천을 잇는 방법으로 색동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민족계열, 기원, 언어, 종교, 의복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투족의 기원이 되는 토곡혼(吐谷渾)의 생성과 소멸과정에서 당나라 군사들에 의해 이주된 고구려 유민, 티베트의 조상이 되는 토번(吐蕃), 원, 당대 몽고인과의 융합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관계가 맺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비교와 분석을 통해 뚜렷이 도출되는 한국민족복식 색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색동에 사용된 색이 많은 편이었으며 주색으로 사용된 색

이 밝고 그 수가 많았다. 또한, 색동과 길이 연결되는 부위의 색이 많은 경우 빨간색이 사용되었다. 특히, 길의 주색이 노랑, 연두, 녹색 일 경우 강렬한 색채대비가 생겨 어깨의 강조를 도왔다. 또한, 본래 색동이 오방색을 활용하여 오복을 두루 갖춰 악한 기운을 막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했고, 색동의 가장자리 쪽에 아이의 생기를 상징하는 색을 두고 점차 그 색을 상생하는 순으로 배열했다는 원칙에서 길과 연결된 빨간색의 색동은 벽사의 의미로, 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우리 민족복식의 색동에선 검정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음양오행설에 근거하여 검정색이陰이면서 '죽음'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고, 중국 남방의 흑색선호와 대조되는 예이다. 마지막으로, 색동의 폭이 비교적 좁고 균일하였다. 좁고 균일한 폭에 다양한 색의 색동은 동일한 색이 반복되거나 좌우 소매의 색배열이 대칭하면 경쾌한 리듬감이 생기는데, 색동의 너비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율동감을 주는 남방민족의 예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색동은 구성의 양식화와 더불어 고유한 민족정서, 색의 의미와 상징을 부여한 음양오행설이라는 철학적사유가 결합하여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확립하고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동부아시아 지역의 민족복식에서 보이는 색동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총괄적인 관점에서 계보를 구축하여 기초적인 연구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다각도의 관점에서 좀 더 발전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2006년 7월 26일 문화관광부는 100대 민족문화상징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민족의 대체로운 색채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써 '색동'이 선정되었다.
- 2) 본 연구에서는 동부아시아의 범위를 한국, 중국, 일본, 몽골에 국한하였다.
- 3) 중국 56개 민족, 한국, 일본의 민족을 합쳐 총 58개 민족으로 파악하였다.
- 4) 2009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베이징을 관련한 자료조사를 위해 방문하였다.
-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색동, 자료검색일: 2009. 11. 03, 자료출처: <http://124.137.201.223/>
-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관한 정의 중 3번째 정의, 자료검색일: 2009. 11. 03, 자료출처: <http://124.137.201.223/>
- 7)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미술문화, p. 238.
- 8) 한국어대사전편찬회 (1976). *한국어대사전*, 서울:현문사, p. 844.
- 9) 안옥규 (1989). *어원사전*. 서울: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진동, 자료검색일: 2010. 1. 17, 자료출처: <http://124.137.201.223/>
- 11) *위의 책*.
- 12) 김영숙 (1988). *한국복식사사전*. 서울: 民文庫.
- 13) 성승연 (1998). *색동의 현대적 표현을 위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 3-4.
- 14) 금기숙 (1997).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p. 73-74.
- 15) 성승연. *앞의 책*, pp. 3-4. 재인용, 이훈중. 국학도감저자, 1999. 3. 12. 인터뷰
- 16) *위의 책*. 재인용, 유희경, 복식학회 고문이사, 복식문화원, 1998. 9. 19. 인터뷰
- 17) 김현식 문화평론가 (2007.07.15.). 데일리안,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과 솔롱고스의 나라, 자료검색일: 2010. 2. 15, 자료출처: <http://www.dailian.co.kr>
- 18) 김규현 (2003). *티베트의 역사산책*. 서울: 정신세계사.
- 19) 김영인, 권영걸 저 (2001). *색색가지 세상*. 서울: 도서출판구재, p. 63.
- 20) 김화숙 (2008). *기모노에 내재된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 고찰*.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유정자 (1996). *일본 기모노 직물문양을 이미지화한 패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 양지나 (2010). *에도시대 우키요에 복식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73-133.
- 22) 한국민족, 만주족, 마오족, 투자족, 이족, 몽골족, 장족 (티베트족), 부이족, 야오족, 조선족, 하니족, 리족, 다이족, 리수족, 거라오족, 고산족, 라후족, 와족, 투족, 징포족, 아창족, 지뉘족, 더양족 등 21개의 민족복식에 색동이 사용되었다.
- 23) 천잇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오색강연*. 서울: 문화체육부(문화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 108.
- 선: 민족문화관련저 (1985). *중국요족복식*. 香港: 民族出版社, p. 38.
- 수: 소소연 (2008). *경산이족복식문화여공예*. 중국방식출판사, p. 13.
- 직조: Romain, Hippolyte, Romain, Yann (2006). *Tibet Style*. Paris : Flammarion ; [New York] : Distributed in North America by Rizzoli, p. 59.
- 천잇기+선: *중화민족복식문화* (1992). 北京: 紡織工

- 業出版社
 천잇기+수: 경기도박물관, 중국 운남민족박물관 (2005).
 중국운남민족문화전. 서울: 경기도박물관: 중국 운남
 민족박물관, p. 98.
 천잇기+선+수: 중화민족복식문화. *앞의 책*.
 천잇기+직조: 이춘생, 中華人民共和國 國家民族事務
 委員會 (1994). *中國少數民族=China's minority peoples*.
 北京: 人民畫報社: 中國畫報出版社.
 선+수: 소소연. *앞의 책*, p. 19.
 실로감기: 경기도박물관, 중국 운남민족박물관. *앞의
 책*, p. 135.
- 24) 천잇기를 사용하여 색동을 구성한 민족: 한국민족, 마
 오족, 투자족, 이족, 몽골족, 장족(티베트족), 부이족,
 야오족, 조선족, 바이족, 하니족, 다이족, 리수족, 거라
 오족, 고산족, 라후족, 나시족, 투족, 징포족, 아창족,
 지뉘족, 더양족
- 25) 박춘순, 조우현 (2002). *중국소수민족복식*. 서울: 도서
 출판 민속원, p. 239.
 정재남 (2007). *중국소수민족연구*. 파주: 한국학술정
 보, p. 976.
- 26)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 246.
 27) 정재남. *앞의 책*, p. 451.
 28) 그림 1의 지도는 연구자가 작성하였음
 29) 1. 한국민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
 의 책*, p. 108.
 2. 조선족,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2004). *中國
 織繡服飾全集-少數民族服飾卷 上*. 天津: 天津人民
 美術出版社, p. 32.
 3. *위의 책*, p. 86.
 4. *위의 책*, p. 2004, p. 287.
 5. *위의 책*, p. 402.
 7. 소소연. *앞의 책*, p. 4,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
 會, p. 536.
 8. 민족문화궁 (1985). *중국묘족복식*. 香港: 民族出版
 社, p. 38.
 9.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2004). *中國織繡服飾
 全集-少數民族服飾卷 下*.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
 社, p. 455
 10. *위의 책*, p. 353.
 12.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p. 351.
 13. 경기도박물관, 중국 운남민족박물관. *앞의 책*, p.
 81.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p. 268.
 14. 경기도박물관, 중국 운남민족박물관. *앞의 책*, p.
 98,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p. 323.
 19. 중화민족복식문화. *앞의 책*, p. 149.
 20. *위의 책*, p. 109.
 21. *위의 책*, p. 106.
 22. *위의 책*, p. 114.
 23. *위의 책*, p. 105.
 24. *위의 책*, p. 88.
 25. *위의 책*, p. 144.
 27. 중화민족복식문화. *앞의 책*, p. 54.
 28.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p. 290.
 29. 중화민족복식문화. *앞의 책*, p. 179.
- 3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도는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음.
- 31)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 239.
 정재남. *앞의 책*, p. 975.
 32) 양지나. *앞의 책*, pp. 18-21.
 33) 정재남. *앞의 책*, p. 269.
 김영인, 권영걸 저. *앞의 책*, pp. 63-70.
 장정룡 (1996). 라후족 虎神崇拜 와 색동문양 고찰.
남방문화, 2.
 장정룡 (2000). 라후족과 한민족 민속의 비교. *중앙음
 악연구*, 8-9.
 34) 정재남. *앞의 책*, p. 529.
 35) *위의 책*, pp. 239-247, 269-273, 531-540.
 36) *위의 책*, pp. 413-414.
 3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책*, p. 109.
 중화민족복식문화. *앞의 책*, p. 36.
 홍원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자료검색일: 2010년 2
 월 6일, 자료출처: www.gogung.go.kr
 중화민족복식문화. *위의 책*, p. 51.
 38) 정재남. *앞의 책*, p. 268.
 3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十 寶藏王 下 및 唐書 東夷傳
 高句麗, 舊唐書 卷43 職官2
 40) 최윤정 (2001). *복식에 나타난 색동의 미적고찰*. 홍익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6.
 41) 하상호 (2000). *전통어린이 복식에 관한연구*. 중앙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2.
 42)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1980. 의 저자
 43) 최윤정. *앞의 책*, 재인용, p. 38.
 44) 하상호. *앞의 책*, 재인용, p. 68.
 45) *위의 책*, p. 35.